

투데이 칼럼

봉달이는 달리고 싶다!... 달려라!... 봉달아...

봉 달이는 마라톤이 이봉주 선수의 애칭이다. 전국만이 불러주며 참 친근하게 다가온다. 그런 봉달이가 지난 11월 29일 오후 3시 2022년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되어 그를 기리는 현액식이 열렸다. 스포츠계, 학계, 언론계 등 400여명의 축하 속에 이기흥 체육회장으로부터 현액패를 받았다.

본인은 현액소감으로 "가문의 영광이다. 4인의 후보에 들어간 만도 큰 영광이고 큰 족적을 남기신 3분에 비하여 조출한데 스포츠영웅이라는 칭호를 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 하였다.

마라톤이 이봉주 선수는 고등학교를 3군데나 다니면서 고3 전국체전 10km에 3위(1위는 황영조 선수)에 입상하여 대학입학특기자 혜택을 받아서 서울시립대(서울시청)소속으로 활약했다.

마라톤선수로는 첫 출전인 1990년 10월 전국체전 마라톤에서 2시간 19분 15초로 2위에 입상하면서 가능성을 내비쳤다. 1993년 코오롱에 입단,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그 이후 은퇴할 때까지 대한민국



이 윤 희 (주)파스코 대표이사

마라톤을 혼자 이끌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98년 로테르담대회에서 2시간 7분 44초, 2000년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7분 20초로 대한민국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현재까지 23년간 유지되고 있다. 98년 방콕아시아게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01년 보스턴마라톤대회, 2007년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2009년 10월 전국체전에서는 2시간 5분 25초로 완주하며 우승, 은퇴경기를 화려하게 마무리하였다. 2009년 체육인으로는 최고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가 되기도 했다.

마흔의 나이로 41년의 마라톤을 완주하였고 그 기록 또한 은퇴하기 전

까지 무려 15년 정도 세계정상 선수들과 겨룰 만큼 2시간 7분~10분 사이를 유지하였다. 보통 선수들이 평균 10여회 완주기록을 보이는데 이는 선수로 대회에 어느 정도 본인의 가능성이나 한계를 절감하면서 선수로서의 가치나 목표를 상실하기에 선수생활을 마치게 된다.

그런데 봉달이 이봉주 선수는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불굴의 정신력으로 훈련에 매진하여 41회를 완주한 것은 전 세계 마라톤계에서는 정말 입지전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올림픽4회(애틀랜타,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출전을 선수생활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간직한다고 한다.

그는 말한다. "힘들 때마다 어린 시절 연약한 어머니가 아버지의 힘

들고 고된 농사일을 거들며 고생한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내 삶은 호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달릴 때마다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은 사실 내가 훈련하면서 만든 근육의 힘보다 더 강했다" 이런 그의 생각을 풀어보건데 어머니와 국민이 그를 호되게 훈련시키고 달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굳센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져 어찌면 2022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된 배경이 아니었을까? 미루어 짐작이 된다.

친구들에 따르면 어릴 때 별명이 "싸시"였다 한다.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말이 없고 수줍음을 잘 타서 그런 별명으로 불리어 졌다는 것이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힘 들고 고된 42.195km를 41번이나 달려냈다니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다만 3년 전 발병한, 원인이 모호한 '근육긴장 이상증'으로 복근을 잡아당겨 그 통증으로 인해 허리와 목을 구부리고 생활하는 지금의 모습에서 양년의 불굴의 마라톤너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디 복근통증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힘차게 달려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본다.

사설

22대 총선 전북 정치권 관심 뜨겁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전북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는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 후보군들의 불필요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북은 초 재선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공석인 전주시 을을 제외하고 정치신인 등 총선 입지자들의 정치 행보는 거의 없다. 기존 중진 의원들의 행보만 거론될 뿐이다.

새로운 인사들의 이름은 사실상 거명조차 안 되고 있다. 특히 도내 다수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는 무엇보다 상황식 공천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만 명을 모집해야 하는 권리당원 모집 활동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모집인정 시정 등을 고려할 때 내년 5월부터는 당원 확보에 사동을 걸어야 한다.

전북에서 야당은 지방선거를 거

쳐며 권리당원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정치신인들의 신규 당원 모집 활동 자체가 힘겨운 상황에서 조직력 확보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 기반이 부재한 정치신인 입장에선 중앙 정치권, 즉 계파안배 도움이 절실하다. 반면 21대 국회의원들을 향한 교체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전북은 초 재선 위주인 정치지형 속에서 최고위원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상황식 공천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공천 방식 변화 혹은 단수 공천 필요성까지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상황식 공천의 누적된 피로감,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의 교체 열망이 더해져 자연스럽게 중앙당의 물갈이 명분을 제공하는 상황이다. 총선 입지자들의 활동 폭은 적지만 현역 의원 교체 범위는 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화 통한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 더 어려워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정유와 철강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시사했고, 모테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가 이렇게 초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관계 장관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토, 산업, 노동부장관에 경찰청장까지 참석했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경제 전체를 불모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관들에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행위에 엄정 조치하고, 정유와 철강에 대해서도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도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경찰 부대, 교통, 형사, 정보까지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서 1년 간 제외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다른 화물차 기사의 운송을 방해하면 화물 운송 자격을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일 강경 대응책을 쏟아내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길은 한층 좁아지고 있다. 총파업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미래 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라는 시각도 단견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문제는 해결책이 모두 준비 없는 대화였다. 정부는 진즉부터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대책을 찾아야 마땅하다. 불필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있었다. 뒤늦게 허둥대는 정부 방침에 국민들은 실망할 뿐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지하철역에 대피해 모인 키아우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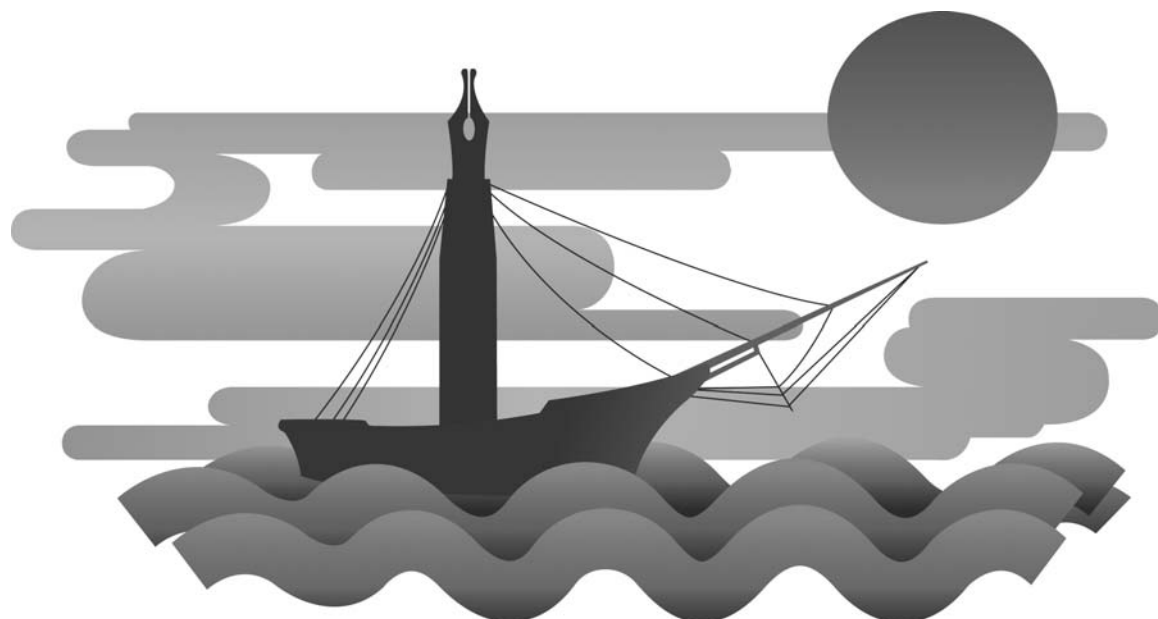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아우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피해 대피소로 사용되는 지하철역에 대피해 모여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으로 발사한 70여 발의 미사일 중 80여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 상황 살피는 인도네시아 구조대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에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자바섬 루마징의 솜베르루 마을에서 구조대가 스메루 화산 폭발로 화산재에 뒤덮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스메루 화산이 1년 만에 분화를 재개하면서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고 주민 2천여 명을 대피시켰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